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The Mediated Effect of Ego Resili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노지영¹ 이희선²

Jee Young Noh¹ Hee Sun Lee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mediated by ego resiliency

Methods: The data from 318 preschool age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were used for this study. Mothers reported mother-child communication using three subscales from the revised parent-child communication inventory(Barnes & Osлом, 1982). This study used four subscales from the Korea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in order to calculate children's ego resiliency and used six subscales from the Child Behavior Scales(Ladd & Profile, 199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in SPSS 19.0.

Results: Positive mother-child communication predicted a higher level of children's ego resiliency and peer competence. Ego resiliency fu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prosocial competence, rejection against peers and insecurity. And positive mother-child communication predicted lower levels of children's aggression, dissociality and irritability. Its association was also mediated by ego resiliency.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 mother's positive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 would enhance children's ego resiliency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Thus, the efforts to facilitate parents' positive communication skills in parent education can be promising for preschool children's positive development.

key words mother-child communication, ego resiliency, peer competence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논문임.

**본 연구는 2014년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²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hslee@gachon.ac.kr)

I. 서론

현대사회의 저 출산 현상으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외동이거나 형제자매가 적어 가정에서 또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최초 또래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경험을 확장시켜 나

간다.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활동, 조기교육열풍, 보육료 지원의 영향으로 자녀양육의 장이 가정에서 기관으로 옮겨지면서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노출의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 긍정적 또래관계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접환경이 되었고,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은 유아기의 전반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사회행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주희, 이은혜, 2001; 양인아, 2009; 최인숙, 2014). 또래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유아기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령기 이후의 학교생활적응과 성인기 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유아기에는 점차 사회적 기술습득을 하게 되며, 또래관계를 통한 경험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해도(Guralnick, 1993; Topping & Ehly, 1998),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남아있고, 언어표현이 자유롭지 않아서 도구적인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또래유능감의 개별적 차이에 따라 공격성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위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유아가 접하는 외적 환경과 유아 개인 고유한 내적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유아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적 환경은 부모라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친밀감, 사회성 등은 부모가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며 모델링을 보여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김희태, 김정림, 이인순, 남연정, 2014; 문연심, 2004).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모의 언어, 습관, 태도 등을 관찰하고 학습하여 사회화가 된다(서소정, 2006; Dunn, Brown & Bearsall, 1991).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자아인식은 성격형성,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기초가 된다(Sroufe, 1979). 즉,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유아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며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유아는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문제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원희, 2003). 또한,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유아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나 돌발 상황 등 스트레스를 직면했을 때 바로 회복하고, 융통성이나 자신감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는 적응능력을 나타냈다(손은희, 2009; 허지연, 2004). 이와 같이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은 아동의 대인관계능력과 관련이 있다. 긍정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타인수용, 친사회적인 대인문제해결, 조망수용능력을 증진되었고(남현영, 이소은, 2004; 이은영, 2012),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정서적 능력과 도덕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지, 양성은, 2012; 오선주, 2004).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연애, 이경희, 2004). 반면에 부모가 부정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유아는 정서적인 불안, 우울로 인해 소극적, 회피적, 자신감 부족을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이나 낮은 의사소통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권, 2004; 민유정, 2008; 심희옥, 김영미, 2001). 어머니와 부정적 의사소통은 공격성과 적대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배민정, 2008; 서혜린, 2007). 전반적으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은 유아의 또래관

계 유능감의 요소인 친사회성, 공격성, 안정감,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유아의 관계와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며(Bhavnagri & Parke, 1991; Isley, O'neil, & Parke, 1996; Lindsey, Cremees, & Caldera, 2010; Zahn-Waxler, Denham, & Lanotti, 1992) 연령이 높아져도 지속적으로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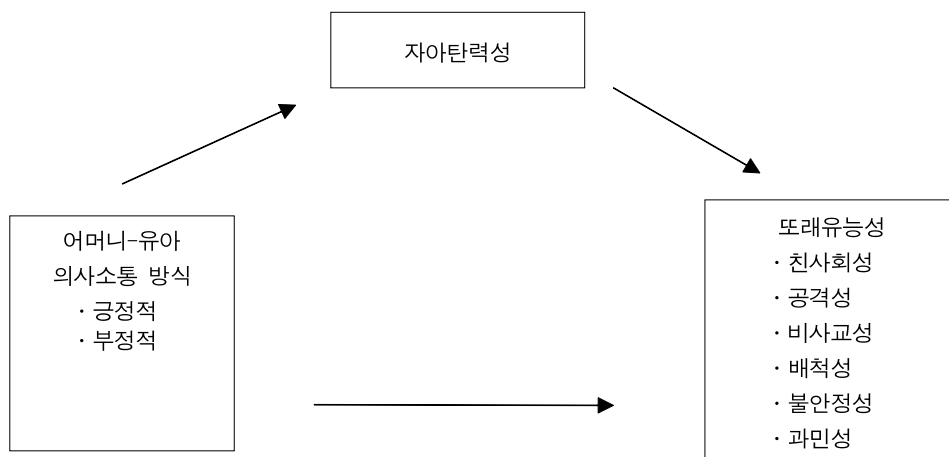
한편, 유아의 또래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이 보고되고 있다(김민아, 2005; 백민정, 2011; 손은희, 2009; 장명희, 2005).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외부적, 내부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유아들에게 긍정적으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필요한데, 최근 많은 연구에서 개인이 복잡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적응능력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밝히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가정이나 또래, 교사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얻고, 지지를 받는다. 또한, 새롭게 도전하는 과제에 대한 두려움이 적으며,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더욱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며, 만족스러운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구희정, 2010; 홍은숙, 2006).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한 유아는 독립성이 뛰어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며(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 장명희 2005), 또래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특성이 있고(전은희, 2008; Goldstein & Brooks, 2006), 친구 간 발생하는 문제 시 다양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한다(김민아, 2005).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이끌어 낸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정림, 이은정, 2014).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관계에서 공감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형성되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부모 자녀관계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친밀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김현령, 류수민, 2015; 이미경, 이윤경, 2014; O' Dougherty, Wright, & Masten, 1997). 그 중에서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임정숙, 2006),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갈등문제 상황에서 집단 내에서 순조롭게 해결한다(Tugade & Fredricson, 2004). 자아탄력성의 긍정적 기능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환경이 중요하다고 한다(Wynne, Jones, & Khayyal, 1982).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고찰에 의하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에 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또래유능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학령기에 초점이 되었고(김미영, 2008; 백경미, 2008; 장영애, 엄윤경, 2009; 정정화, 2008), 상호작용의 대상인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논문으로 양육 효능감(박형신, 김정주, 2015; 안라리, 김정아, 2005), 양육행동(박주희, 이은혜, 2001; 최인숙, 2014) 정서표현(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등을 검증하였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따른 또래유능성의 향상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탄력성 간에도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은선(2010)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태도,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적 역할이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명순과 김종은(2014)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교 생활적응에서 공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또래유능성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한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유아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불어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차지하는 매개적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교육프로그램개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5-7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약 63.49개월($SD = 9.98$)이고,

남아가 158명(49.69%), 여아가 160명(50.31%)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은 8.75%로 대부분이 형제자매가 있었고, 첫째는 50.31%, 둘째가 34.06%로 대부분이었으며 셋째 이상은 6.88%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08세($SD = 4.1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51.25%)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이나 대학중퇴(20.31%), 고등학교 졸업(15.0%), 대학원 이상(13.44%)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방식

어머니와 유아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sлом(1982)의 부모-유아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중 부모용을 심성경과 김나림(1997)이 유아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고희선(201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의사소통 방식의 척도는 촉진적 의사소통(5문항), 개방적 의사소통(5문항) 그리고 일방적 의사소통(5문항) 등 세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 공감하여 반영적 경청을 하며,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측면을 측정한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주는 의사소통 측면을 측정한다. 일방적 의사소통은 부모가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일방적 의사소통은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촉진적 의사소통과 개방적 의사소통은 높은 상관관계($r = .71$)가 나타났고, 이 두 방식을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사용한 선행연구(이현미, 2013)에 근거하여 두 하위요인을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런 편이다, 2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 거의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각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 혹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긍정적 의사소통이 .69, 부정적 의사소통이 .75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한국유아인성검사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이지연, 황순택, 이수경, 2001). 이 검사는 만4세~만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하며, 유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유아와 함께 생활한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자아탄력성 척도는 유아의 가족관계(4 문항), 자신감 및 쾌활함(6문항), 낙천성 및 자기수용(8문항), 또래관계 (4문항)등 4개의 하위영역의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관계는 가족 내 관계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측정하며, 자신감 및 쾌활함은 주도성과 자신감, 여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낙천성 및 자기수용은 인내심과 집중력, 자기 통제

력을 측정하고, 또래관계는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한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런 편이다, 2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 거의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3)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Ladd와 Profilet(1996)이 개발한 Child Behavior Scale (CBS)을 송정(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친사회성(6문항), 공격성(5문항), 비사교성(4문항), 배척성(5문항), 불안정성(3문항), 과민성(4문항) 등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을 포함하였다. 친사회성은 또래들을 잘 도와주며 항상 또래들에게 협조적이고 친절한 행동을, 공격성은 또래들과 쉽게 다투거나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측정한다. 비사교성은 또래 아이들과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고 내성적이며 잘 어울리지 못 하는 행동을, 배척성은 또래들이 싫어하고 놀이친구로 선택하지 않으며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특성을, 또한 불안정성은 공연한 근심과 걱정이 많고 쉽게 잘 우며 낮은 장소에 가면 불안해하는 행동 특성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과민성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고 침착하지 못하는 행동 특성을 측정한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런 편이다, 2점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점 = 거의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친사회성은 .87, 공격성은 .94, 비사교성은 .86, 배척성이 .90, 불안정성이 .79, 그리고 과민성이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7세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3개의 어린이집과 5개의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조사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협조 가능한 어린이집을 전화 연락을 통해서 선정하였고, 본 연구목적 및 사용 계획 안내문을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사전 배부하였다. 설문지 조사에 응한 부모님에 한해서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고, 이 중 323부(64.6% 회수율)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 비율이 낮은 5부를 제외한 총 318부 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로 산출하고 Pearson의 상관관계수 분석을 통해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과 유아들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하는 3단계 절차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이 종속변인인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인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방식이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방식과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이 또래 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의 표준화 계수 크기가 세 번째 단계의 해당 값보다 큰 지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3단계 매개 검증을 통해서 얻어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비표준화 계수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서의 비표준화 계수를 각각 a , b 로 보고, SEa 는 a 의 표준오차, SEb 는 b 의 표준오차로 하여 Sobel 방정식 ($a \times b / \sqrt{b^2 \times SE_a^2 + a^2 \times SE_b^2}$)에 대입하여 Z -value를 계산하였다. 그 수치가 ± 1.96 보다 크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p < .05$ 수준).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기초분석으로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61, p < .001$). 또한 어머니와 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과는 정적 상관이 ($r = .38, p < .001$), 공격성, 비사교성,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 = -.40 \sim -.24, p < .001$), 비사교성만이 유의수준이 .01 수준에서 상관이 나타났다($r = -.22, p < .01$).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와 유아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과 친사회성과는 부적상관이 있었으며($r = -.34 \sim -.22, p < .001$), 공격성, 비사교성,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7 \sim .32, p < .001$). 한편 자아탄력성은 또래 유능성의 친사회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며($r = .55, p < .001$), 그 외 다른 하위변인들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3 \sim -.31, p < .001$).

2.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방식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조사하는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값과 분산팽창요인(VIF)이 각각

<표 1>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N = 318)

구분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자아 탄력성	또래유능성					
	1	2	3	4	5	6	7	8	9
1. 긍정	1.00								
2. 부정	-.45***	1.00							
3. 자아탄력성	.61***	-.34***	1.00						
4. 친사회성	.38***	-.22***	.55***	1.00					
5. 공격성	-.35***	.26***	-.31***	-.34***	1.00				
6. 비사교성	-.22**	.17***	-.51***	-.33***	.35***	1.00			
7. 배척성	-.35***	.26***	-.53***	-.45***	.65***	.67***	1.00		
8. 불안정성	-.24***	.22***	-.46***	-.32***	.31***	.37***	.41***	1.00	
9. 과민성	-.40***	.32***	-.33***	-.37***	.47***	.22***	.45***	.34***	1.00
Mean	3.12	2.16	3.01	2.96	1.54	1.71	1.65	2.19	1.90
SD	.35	.41	.34	.39	.41	.47	.40	.57	.57

** $p < .01$, *** $p < .001$.

.627~.629, 1.00~1.5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과 종속 변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각각 조사하고 매개 검증이 가능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들의 경우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 중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과 또래 유능성에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직 긍정적인 의사소통만이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또래 유능성

<표 2> 어머니-유아 의사소통방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 (N = 31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R^2	F
자아탄력성	긍정적 의사소통	.56	.05	.57***	.38	96.29***
	부정적 의사소통	-.07	.04	-.08		
친사회성	긍정적 의사소통	.41	.07	.36***	.15	27.93***
	부정적 의사소통	-.06	.06	-.06		
공격성	긍정적 의사소통	-.34	.07	-.29***	.13	24.33***
	부정적 의사소통	.13	.06	.13*		
비사교성	긍정적 의사소통	-.24	.08	-.18**	.05	8.86***
	부정적 의사소통	.09	.07	.08		
배척성	긍정적 의사소통	-.33	.07	-.29***	.13	24.19***
	부정적 의사소통	.13	.06	.13*		
불안정성	긍정적 의사소통	-.31	.10	-.19**	.07	12.65***
	부정적 의사소통	.19	.09	.13*		
과민성	긍정적 의사소통	-.53	.09	-.33***	.18	36.48***
	부정적 의사소통	.24	.08	.18**		

** $p < .01$, *** $p < .001$.

의 6개의 하위 요인인 친사회성, 공격성, 비사교성, 배척성, 불안정성, 과민성 등에 미치는 매개관계의 가능성이 나타났다(<표 2> 참고). 이에 어머니-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만을 포함하여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의 6개 하위영역들 간의 매개 관계의 여부를 Baron과 Kenny (1986)의 4단계 절차에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모두 유의미한 완전 혹은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며,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 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 방식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 효과

어머니-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또래 유능성 중 친사회성, 배척성, 불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친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단계 $\beta = .38, p < .001$). 또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2단계 $\beta = .61, p < .001$, 이후 생략), 매개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3단계 $\beta = .08, p > .05$)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완전매개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25, p < .001$)([그림 2] 참고).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배척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배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단계 $\beta = -.35, p < .001$). 또한, 매개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에 자아탄력성은 배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표 3> 어머니 의사소통방식의 또래유능성 중 친사회성, 배척성, 불안정성 대한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효과 ($N = 318$)

또래유능감 하위요인	단계	경로	B	SE	β	R^2	F	z
친사회성	1	긍정적 의사소통 → 친사회성	.43	.06	.38***	.15	54.99***	1.25***
	2	긍정적 의사소통 → 자아탄력성	.60	.04	.61***	.37	188.44***	
	3	자아탄력성 → 친사회성	.58	.07	.50***	.31	69.93***	
		긍정적 의사소통 → 친사회성	.09	.07	.08			
배척성	1	긍정적 의사소통 → 배척성	-.40	.06	-.35***	.12	42.91***	-7.16***
	2	긍정적 의사소통 → 자아탄력성	.60	.04	.61***	.37	188.44***	
	3	자아탄력성 → 배척성	-.57	.07	-.49***	.27	57.46***	
		긍정적 의사소통 → 배척성	-.06	.07	-.05			
불안정성	1	긍정적 의사소통 → 불안정성	-.40	.09	-.25***	.06	20.28***	-6.68***
	2	긍정적 의사소통 → 자아탄력성	.60	.04	.61***	.37	188.44***	
	3	자아탄력성 → 불안정성	-.82	.11	-.49***	.21	42.72***	
		긍정적 의사소통 → 불안정성	.09	.10	.06			

** $p < .01$, *** $p < .001$.

(3단계 $\beta = -.49, p < .001$),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배척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3단계 $\beta = -.05, p > .05$)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완전매개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7.16, p < .001$).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불안정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단계 $\beta = -.25, p < .001$). 또한, 자아탄력성은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3단계 $\beta = -.49, p < .001$) 매개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3단계 $\beta = .06, p > .001$) 역시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완전매개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6.68, p < .001$). 즉,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고,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만 아동의 높은 친사회성, 낮은 배척성과 낮은 불안정성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 방식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 효과

어머니-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은 또래유능성 중 공격성, 비사교성, 과민성 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매개하여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분 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4>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 (N = 318)

또래유능감 하위요인	단계	경로	B	SE	β	R^2	F	z
공격성	1	긍정적 의사소통→공격성	-.41	.06	-.35***	.12	54.99***	-2.23**
	2	긍정적 의사소통→자아탄력성	.60	.04	.61***	.37	188.44***	
	3	자아탄력성→공격성	-.18	.08	-.15*	.13	69.93***	
		긍정적 의사소통→친사회성	-.30	.08	-.26***			
비사교성	1	긍정적 의사소통→비사교성	-.29	.07	-.22***	.05	42.91***	-8.46***
	2	긍정적 의사소통→자아탄력성	.60	.04	.61***	.37	188.44***	
	3	자아탄력성→비사교성	.20	.08	-.60***	.27	57.46***	
		긍정적 의사소통→비사교성	-.82	.08	.15*			
과민성	1	긍정적 의사소통→과민성	-.66	.08	-.40***	.16	20.28***	-2.16*
	2	긍정적 의사소통→자아탄력성	.60	.04	.61***	.37	188.44***	
	3	자아탄력성→과민성	-.52	.11	-.15*	.18	42.72***	
		긍정적 의사소통→과민성	-.24	.11	-.31***			

** $p < .01$, *** $p < .001$.

위에서 제시된 바대로, 2단계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임이 검증되었고, 1단계와 3단계의 분석결과를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단계 $\beta = -.35, p < .001$). 또한, 자아탄력성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3단계 $\beta = -.15, p < .001$) 매개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3단계 $\beta = -.26, p < .001$). 이 부분매개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23, p < .001$).

둘째, 어머니-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비사교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비사교성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단계 $\beta = -.22, p < .001$). 또한, 자아탄력성은 비사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3단계 $\beta = -.60, p < .001$) 매개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고려되면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비사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3단계 $\beta = .15, p < .05$). 이 부분매개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8.46, p < .001$).

셋째, 어머니-유아의 긍정적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과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과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단계 $\beta = -.40, p < .001$). 또한, 자아탄력성은 과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3단계 $\beta = -.15, p < .05$) 매개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3단계 $\beta = -.31, p < .001$). 이 부분매개 효과는 Sobel Test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16, p < .001$). 즉, 어머니-유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유아의 낮은 공격성, 비사교성, 과민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고,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공격성, 비사교성 및 과민성을 낮추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5-7세 유아를 둔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이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유능성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손은희, 2009; 심원희, 2003; 허지연, 2004; Bhavnagri & Parke, 1991; Isley, O'neil, & Parke, 1996; Lindsey, Cremees, & Caldera, 2010; Wynne, Jones, & Khayyal, 1982; Zahn-Waxler, Denham, & Lanotti, 1992)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Wine, 1982). 가정에서 자녀에게 개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가 스트레스 수준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적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행연구(임정숙, 200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이며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회정서를 또래관계에도 일반화시킨다(Hartup, 1983)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남현영, 이소은, 2004; 이은영, 2012; 임정숙, 2006),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며(안지영 등, 2011; 장명희, 2005),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이끌어 낸다는(김정림, 이은정, 2014)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발달에 기여하여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이는 유아의 공격성과 비사교성, 과민성 등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의사소통,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의 매개효과 탐색해 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또래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친사회성, 배척성, 불안정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또래유능성에서 친사회성, 배척성,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관계 형성 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자아탄력성은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나리, 2013; 최진현, 2011).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상황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회복한다는 연구(Tugade & Fredricson, 2004)에서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갈등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극적 또는 불안,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사회기술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Block & Block, 1980). 어머니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또래 유능성의 공격성, 비사교성과 과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유아의 또래 간 공격성, 비사교성, 과민성을 낮춘다는 결과는 어머니와 개방적이고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유아들은 또래관계의 질이 높아 상호친밀하고(최경옥, 2004), 공감적이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역기능적으로 부정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관계의 질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많은 공격성이 높아지고, 고립이나 무시 등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또래관계를 맺는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선경, 2004; 심원희, 2003; 장영애, 박정희 2008; Chaplin, Cole, & Zahn-Waxler, 2005). 자

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유롭고 공감적인 대화는 상호 간의 이해와 만족의 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장영애, 엄윤경, 2009), 유아의 또래관계도 원만하게 유지시킴으로써 건강한 또래관계 생활적응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다룬 유아 대상으로 조사된 기존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어머니-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이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 대인 관계 성향을 예측함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을 밝힌 결과(김기영, 2009)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자아탄력성의 매개 역할을 제시한 노은선(2010)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이희선, 선우현정, 2011)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 공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명순, 김종은, 2014)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사소통에 자아탄력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지시적 의사소통에서 긍정적 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유아에게 지시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방법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유아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이는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의사소통보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위해서 유아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연관이 있다는 본 연구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낮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였다는 다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증진 하고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또래와 친사회적으로 대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며 사교적이고, 안정성을 가지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유아들은 점차 어린연령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집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응 발달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또래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기관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한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어머니와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표본대상에 제한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생활수준과, 지역을 고려한 다면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방식을 어머니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자신이 지각하는 바와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실제 행동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면접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한 결과에 비해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의사소통만이 영향을

나타내고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다름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비 일관적인 결과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연구도구의 문항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아버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족 내의 문화라는 것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역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또래유능성에 대한 연구의 대상을 유아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또래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 즉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간의 삼자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의 아동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대한 더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자아탄력성이 아닌 다른 제 3의 아동의 발달 특성에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지 등을 발달 영역적 특수성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및 다양한 개입방법의 개발은 낮은 자아탄력성 및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발달시켜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포함하여 건강한 사회적응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희선 (2010). 부모-유아 의사소통 및 형제변인에 따른 유아의 또래 간 갈등해결의 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정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상과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권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리 (2013).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유능감,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 갈등, 자아탄력성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초등학생의 사회성발달의 관계. 경

- 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림, 이은정 (201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8(4), 95-113.
- 김현령, 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 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유아교육연구**, 34(2), 29-48.
- 남현영, 이소은 (200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85-496.
- 노은선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유정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유아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 221-231.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성, 기질,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359-382.
- 박형신, 김정주 (2015).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교사-유아관계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1-26.
- 배민정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정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서혜린 (2007).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희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 (1999).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성경, 김나림 (1997). 아버지-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 17(2), 139-160.
- 심원희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수준과 자녀 부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김영미 (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 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친구 지지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32(6), 63-79.
- 안라리, 김정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영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스트레스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6(1), 329-350.
- 양인아 (2009). 5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기 조절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이윤경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탄력성과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연구**, 19(2), 201-224.
- 이명순, 김종운 (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335-356.
- 이은영 (2012).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또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황순택, 이수경, (2001). 한국아동인성검사(KPI-C)의 자아탄력성척도(ERS) 타당도연구. **정신건강연구**, 20, 213-225.
- 이현미 (2013).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지, 양성은 (2012).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 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4), 21-36.
- 이희선, 선우현정 (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의 관계: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6), 109-122.
- 임정숙 (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친구관계의 질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3(2), 69-85.
- 장영애, 엄윤경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7(4), 3-16.
- 정정화 (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서강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희 (2008).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옥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14).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32(6), 47-58.
- 최진현 (2011). 아동의 놀이성과 친구관계 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지연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애, 이경희 (200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치원교사가 지각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7, 121-140.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33-48). MN,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havnagri, N.,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ffect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423-440.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Dunn, J., Brown, J.,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s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Chaplin, T. M., Cole, P. M., & Zahn-Waxler, C. (2005).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Gender differences and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Emotion*, 5(1), 80-88.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Guralnick, M. J. (1993). Develop 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children's peer relation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3), 344-371.
- Goldstein, S., & Brooks, R. B. (2006). Why study resilience?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 1-16). NY: Springer.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 P. H. Musse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pp. 103-196). NY: Wiley.
- Isley, S., O'Neil, R., & Parke, R. D. (1996). The relation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s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1), 7-23.
- Ladd, G. W., & Profilet, S. M. (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er'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Lindsey, E. W., Cremeens, P. R., & Caldera, Y. M. (2010). Mother-child and father-child mutuality in two contexts: Consequences for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9*(2), 142-156.
- O' Dougherty, M., Wright, F. S., & Masten, A. S. (1997).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In J. D. Noshpitz, S. Greenspan, S. Wieder, & J. Osofsky (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pp. 202-224). NY: John Wiley & Son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roufe, L. A. (1979). The coh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Early care, attachment, and subsequent developmental issue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34-841.
- Topping, K. J., & Ehly, S. (Eds.). (1998). *Peer-assisted learning*. Mahwah, NJ: Erlbaum.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Wine, J. D. (1982). Evaluation anxiety: A cognitive-attentional construct. In H. W. Krohne & L. C. Laux (Eds.). *Achievement, stress, and anxiety* (pp. 207-222). Wasington, DC: Hemispere.
- Wynne, L. C., Jones, J. E., & Al-Khayyal, M. (1982). Healthy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bservation in families 'at risk' for psychopathology,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pp. 142-164). NY: Guilford Press.
- Zahn-Waxler, C., Denham, S., Ianotti, R. J., & Cummings, E. M. (1992). Peer relations in children with a depressed caregiver.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317-344). Hillsdale, NJ: Erlbaum.

논문투고: 17.02.15
수정원고접수: 17.03.23
최종게재결정: 17.04.10